**이사야** 12/13/2021

**저자와 기록연대**: 이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우며, 그 이름은 “여호와가 구원하신다”라는 뜻이다. 그는 아모스, 호세아와 미가의 동시대 인물로서 웃시야 왕이 죽던 해(주전 740년)에 사역을 시작했다.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(37:1-2), 웃시야 왕의 통치사를 기록하기도 했다 (대하 26:22). 이사야서는 주전 701-681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.

**배경**: 이사야서는 앗수르 제국의 확장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사이의 험난한 시기에 기록되었다. 디글랏 블레셀 3 세(주전 745-727)가 서쪽으로 아람 (수리아)와 가나안을 침공하자, 아람과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을 위협하여 동맹을 요구했으나, 아하스는 오히려 앗수르에게 원조를 청하는데 이를 이사야가 책망하게 된다 (주전 733, 7:1-2). 앗수르는 유다를 도와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하나 (주전 722), 이는 오히려 유다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만다. 주전 701년에 앗수르는 산헤립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위협하는데 (36:1), 경건한 왕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기도하여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물러가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된다 (37:6-7).

그러나 이사야는 유다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,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의 병문안 온 것이 화근이 되리라 경고하였다 (39:1-6). 예루살렘의 함락은 훨씬 후인 주전 586년에 가서야 일어났지만,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을 전제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한다 (40:2-3). 애굽에서 그들을 구하여내신 것처럼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해오실 것이며 (35:9, 41:14), 페르샤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것임을 예언한다 (41:2, 주전 539/8).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을 예표하는 위대한 예언을 수반한다 (52:7).

**주제**: 하나님의 구원. 이사야서는 완전한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. 하나님은 “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”(1:4) 로서 패역한 백성을 심판하시고 (1:2) 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다 (41:14,16). 이스라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다 (24:1,21; 34:1-2).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며 (9:7, 32:1)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으로 (시온의 대로로) 올 것이다 (2:2-4). 이 메시야적 임금을 “나의 종”(42-53장)이라 부르시고, 그 종의 고난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.

**문학 형태**: 이사야서는 산문과 시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, 그 시들은 구약의 모든 시를 능가하는 아름다운 것이다. 산문은 주로 36-39장에 나오는데, 이 네 장은 역사적 삽입(interlude)으로서 1부(1-35장)의 결론이자 3부(40-66장)의 서론적 기능을 하고 있다. 이사야서는 풍부한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는데, 의인법, 은유법, 풍자, wordplay 등이 가장 많이 나온다. 이사야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언급하고 모세의 노래를 자주 인용하며,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. 48:22과 57:21의 후렴은 3부 27장을 세 부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있다.

**개요**

1. 심판의 말씀 (1-39장)
2. 책망과 약속 (1-6)
3. 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한 예언 (7-12)
4. 열국에 대한 심판 (13-23)
5. 심판과 약속 (24-27)
6. 여섯 가지 화 (28-33)
7. 심판과 약속 (34-35)
8. 앗수르의 위협에서 바벨론 포로로의 전환 (36-39장)
9. 앗수르의 위협에서의 보호 (36-37)
10. 히스기야의 목숨의 연장 (38)
11. 바벨론 포로생활에 대한 예고 (39)
12. 위로의 말씀 (40-66장)
13.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(40-48)
14. 종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회복 (49-57)
15.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 (58-66)